

Experimental Study on Perception and Pronunciation of Korean Initial Consonant, Vowel, Final Consonant For Japanese-speaking Learners

Youngbo Cho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study that analyzed the perception and pronunciation ability of the initial consonant, vowel, final consonant of the Korean language for Japanese-speaking Korean learners. For the experiment, the researcher arbitrarily prepared a list of 336 monosyllables, and through this lis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perception and pronunciation skills of Japanese-speaking learn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experiment, Japanese-speaking learners had better pronunciation ability than perceptual ability, but through an interview conducted after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learners were not sure whether they were pronouncing correctly even if they were pronouncing it correctly. Since the list of 336 monosyllables was arbitrarily prepared to confirm the discriminatory power of the initial consonant, vowel, final consonant, a study to analyze natural conversations and compare them with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 Words: Initial Consonant, Vowel, Final Consonant, Perception, Pronunciation

한국어 초성, 중성, 종성의 지각 및 발음에 대한 실험 연구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 영 보**

요약: 본 연구는 일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초성, 중성, 종성 자음에 대한 지각 능력과 발음 능력을 분석한 실험 연구이다. 실험을 위하여 336개의 단음절 목록을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 목록을 통하여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지각 능력과 발음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본어권 학습자는 지각 능력보다 발음 능력이 더 뛰어났으나 실험 후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올바르게 발음하는 경우라도 스스로는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6개의 단음절 목록은 초성, 중성, 종성의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자연스러운 대화를 분석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초성, 중성, 종성, 지각 능력, 발음 능력

□ 접수일: 2022년 5월 11일, 수정일: 2022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 한국 언어·문학·문화 국제학술대회(2017년 8월 4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PhD, Yonsei Univ., Email: lascote@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본어권 학습자는 쓰기과 읽기 영역에서는 타 언어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는 쓰기과 읽기 영역에서 보여주는 것만큼의 성취를 보이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소 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초성과 중성, 그리고 중성의 음소가 더 많다. 따라서 이를 구별하거나 발음하는데 있어서 일본어권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소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을 보면, 우선 한국어의 초성은 무성음이다. 반면 한국어의 초성 다, 따, 타와 음가가 비슷한 일본어의 음소 /だ/、/た/는 무성음/た/과 유성음/だ/의 대립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어에서는 2개의 음소가 한국어에서는 3개의 음소이며, 유무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다.¹⁾ 둘째, 일본어는 단중성이 5개이다. 반면 한국어에는 10개의 단중성이 있다. 이 중 한국어에서 조음위치가 비슷한 두 개의 중성이 일본어에서는 한 개의 중성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한국어의 중성 /ㄴ/와/ㄷ/, /ㄹ/와/ㄷ/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에서 중성의 역할을 하는 음소는 축음인 /っ/와 /ん/ 두 개가 있으며 /っ/는 한국어의 중성 /ㄱ/, /ㄷ/, /ㅂ/으로 /ん/은 한국어의 중성 /ㅇ/, /ㄴ/, /ㄹ/과 유사하다. 각각 일본어에서는 하나로 지각하고 있는 음소가 한국어에서는 세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성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다.²⁾

이와 같은 음운의 차이로 인하여 일본어권 학습자는 듣기 및 말하기에서 의사소통에 실패하기도 하며 그 후에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 문어에 집중하거나 말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³⁾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문어뿐만이 아

1) 김수진(2002)에서는 음소대조군을 설정하여 이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경음을 평음으로 듣는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격음과 경음은 모두 평음으로 듣는 오류가 많았다고 하였다. 가장 많이 보인 오류는 /ㅃ/를 /ㅅ/로, /ㅌ/를 /ㄷ/로, /ㅍ/를 /ㄱ/로, /ㅈ/를 /ㅊ/로 듣는 오류였다.

2) 이경희·정명숙(1999)에서는 VOT와 피치를 이용하여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을 음성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지각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인들은 어두 위치에서 평음과 격음을 잘 구별해 내고, 어중에서는 평음과 격음을 잘 구별해 낸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격음을 교수할 때는 기식성을 강조할 것, 경음을 교수할 때에는 일본어에서 어중에 올 때처럼 발음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연구 방법

〈표 1〉 다음절 목록

[illegible]

4) 오대환(2003)에서는 /ㄱ/와 /ㄷ/, /ㄴ/와 /ㄹ/가 일본어에서는 동일하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간적인 실수로 인한 부정확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들려준 음절의 순서는 엑셀의 자동 정렬 기능을 통해 임의로 정하였다. 듣기에 이용한 음성은 연구자가 전체 음절을 발음한 것을 녹음하여 들려주었다. 단음절 목록을 그대로 발음할 경우 평음이 격음으로 잘못 발음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와 ‘이’를 임의로 먼저 말한 후 단음절을 발음하였으며 받아 적을 때에는 첫음절인 ‘아’와 ‘이’는 생략한 채 두 번째 음절만 받아 적게 하였다.

받아쓰기가 끝난 뒤에는 일본어권 학습자 11명이 한 명씩 336개의 단음절 목록을 발음하도록 한 뒤 이를 녹음하였다. 녹음을 위해 digital audio tape recorder(Tascam DA-P1)를 이용하였으며 녹음한 테이프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생활한(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만 31세 한국어 모어 화자 남자 두 명이 이를 들리는 대로 받아 적었으며 이를 비교하여 공통된 발음을 채택하였다. 두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다를 경우 연구자가 다시 한번 듣고 받아 적은 후 두 사람과 공통된 발음을 채택하였다. 세 사람의 받아 적은 것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생활한 만 31세 한국어 모어 화자 여자 한 명에게 받아 적도록 하여 공통된 발음을 채택하였다.

II. 지각 및 발음 능력 실험 결과

1. 초성의 지각 능력

336개의 단음절 목록에서 초성은 /ㄱ/, /ㄴ/, /ㄷ/, /ㄹ/, /ㄲ/, /ㄳ/, /ㄴᄂ/, /ㄴᄃ/, /ㄴᄄ/, /ㄴᄅ/, /ㄴᄆ/, /ㄴᄇ/, /ㄴᄈ/, /ㄴᄉ/, /ㄴᄊ/, /ㄴᄋ/, /ㄴᄌ/, /ㄴᄍ/, /ㄴᄎ/, /ㄴᄏ/의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음소 당 빈도는 24번이다. 336개의 단음절 목록을 14개의 초성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 초성은 24번씩 실험하였다. 그러나 목록 생성 후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ㄱ은 25번, ㄴ은 23번 측정하였으며 나머지 초성은 24번씩 측정하였다.

<표 2>를 보면 평음의 정확도는 높은 반면 경음과 격음의 정확도는 낮음을 볼 수 있다. 일본어의 유성음은 한국어의 평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평음의 구별은 잘 할 수 있지만 일본어의 무성음은 한국어의 경음으로도 격음으로도 발음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구별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평음, 경음, 격음의 지각 정확도(단위: %)⁵⁾

실험자 번호	평음	경음	격음
1	87.57	73.30	32.29
2	91.70	52.36	50.00
3	91.67	71.56	62.50
4	96.67	71.56	59.38
5	95.07	74.02	83.33
6	95.03	62.97	60.42
7	95.07	83.26	57.29
8	94.17	33.51	59.38
9	93.37	41.78	57.29
10	99.17	40.11	72.92
11	89.23	74.75	47.92
평균	91.77	60.52	57.29

1, 7, 11번 실험자는 경음의 정확도가 격음의 정확도보다 20% 이상 높다. 이는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을 구별하지 못하여 둘 다 경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10번 실험자는 격음의 정확도가 경음의 정확도보다 20% 이상 높다. 이는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 이를 둘 다 격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이를 통해서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평음과 경음, 평음과 격음의 구별은 원만하게 할 수 있지만 경음과 격음의 구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에 따라 경음으로 지각하기도 하고 격음으로 지각하기도 하여 일관된 성향을 보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⁶⁾

〈표 3〉을 보면 평음 중에서 다른 평음에 비해 /ㅅ/만 정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에는 한국어의 /ㅅ/과 비슷한 음가를 가진 유성음은 존재하지만 /ㅆ/과 비슷한 음가를 가진 무성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ㅅ/과 비슷한 음가를 가진 유성음이 어중에서의 위치에 따라 /ㅆ/과 비슷한 음가로도 발음되기 때문에 다른 평음보다 정확하게 구별해 내지 못하였다.

또한 /ㄱ/과 /ㅋ/, /ㄷ/과 /ㅌ/은 경음의 정확도가 격음보다 높지만 /ㅈ/과 /ㅊ/은 비슷하며, /ㅃ/과 /ㅍ/은 격음의 정확도가 경음보다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2번 학생의 경우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ㄱ/과 /ㅋ/, /ㄷ/과 /ㅌ/은 경음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ㅃ/과 /ㅍ/은 반대로 격음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음과 격음이라는 접근에서

5) 이후 표에 나오는 숫자의 단위는 모두 (%)이며 이후 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6) 森香奈(2008)에서는 한국어의 경음과 어두의 평음은 일본어에는 없는 조음방식이기 때문에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벗어나 음소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초성의 음소별 지각 정확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92.00	95.65	4.17	87.50	83.33	12.50	70.83
2	96.00	82.61	8.33	91.67	83.33	29.17	75.00
3	100.00	86.96	33.33	95.83	79.17	66.67	70.83
4	100.00	86.96	41.67	95.83	91.67	54.17	87.50
5	92.00	82.61	70.83	100.00	83.33	70.83	91.67
6	96.00	56.52	54.17	100.00	75.00	50.00	87.50
7	92.00	91.30	45.83	95.83	100.00	41.67	87.50
8	100.00	21.74	91.67	87.50	45.83	45.83	95.83
9	96.00	13.04	79.17	95.83	58.33	66.67	91.67
10	100.00	13.04	91.67	95.83	29.17	79.17	100.00
11	92.00	69.57	20.83	87.50	79.17	37.50	87.50
평균	94.77	61.87	47.12	91.99	74.68	48.08	82.37
	ㅈ	ㅊ	ㅋ	ㅌ	ㅍ	ㅊ	ㅌ
1	58.33	87.50	83.33	29.17	100.00	45.83	83.33
2	50.00	95.83	16.67	83.33	100.00	29.17	79.17
3	75.00	91.67	75.00	75.00	100.00	41.67	75.00
4	50.00	100.00	54.17	75.00	100.00	75.00	66.67
5	75.00	100.00	62.50	95.83	91.67	66.67	95.83
6	66.67	91.67	62.50	70.83	100.00	54.17	66.67
7	66.67	100.00	79.17	62.50	100.00	79.17	79.17
8	29.17	87.50	50.00	50.00	100.00	20.83	50.00
9	29.17	87.50	83.33	12.50	95.83	25.00	70.83
10	70.83	100.00	50.00	70.83	100.00	37.50	50.00
11	79.17	83.33	83.33	58.33	95.83	62.50	75.00
평균	60.90	92.95	59.62	61.86	96.79	45.51	72.12

〈표 4〉를 보면 평음을 잘못 지각하였을 경우에 경음으로 지각하는 경우(69.39)가 격음으로 지각하는 경우(26.5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ㄱ/은 /ㄴ/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54.55%, /ㄷ/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36.36%를 차지하였고, /ㄹ/은 /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62.50%, /ㅂ/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37.50%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ㅅ/은 /ㅈ/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없이 /ㅊ/으로 지각하는 경우만 75%였으며, /ㅌ/는 /ㅍ/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00%였다. /ㅈ/과 /ㅊ/은 대립되는 격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 오류 결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ㅅ/과 /ㅌ/은 전체 평균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4〉 평음의 지각 오류 분석 결과

평음			
계	평음(경음)	평음(격음)	예외
49	34	13	2
	69.39	26.53	4.08
ㄱ 275			
계	ㄱ(ㄲ)	ㄱ(ㅋ)	ㄱ(ㆁ)
11	6	4	1
	54.55	36.36	9.09
ㄷ 264			
계	ㄷ(ㄸ)	ㄷ(ㅌ)	
16	10	6	
	62.50	37.50	
ㅂ 264			
계	ㅂ(ㅃ)	ㅂ(ㅍ)	ㅂ(ㅁ)
4		3	1
		75.00	25.00
ㅈ 264			
계	ㅈ(ㅉ)	ㅈ(ㅊ)	
18	18		
	100.00		

〈표 5〉 경음의 지각 오류 분석 결과

경음				
계	경음(평음)	경음(격음)		예외
393	134	257		2
	34. 10	65. 39		0. 51
ㄴ 253				
계	ㄴ(ㄴ)	ㄴ(ㄷ)	ㄴ(ㅂ)	ㄴ(ㅇ)
92	30	60	1	1
	32. 61	65. 22	1. 09	1. 09
ㄷ 264				
계	ㄷ(ㄷ)		ㄷ(ㅌ)	
70	29		41	
	41. 43		58. 57	
ㅂ 264				
계	ㅂ(ㅂ)		ㅂ(ㅍ)	
135	36		99	
	26. 67		73. 33	
ㅈ 264				
계	ㅈ(ㅈ)		ㅈ(ㅊ)	
96	39		57	
	40. 63		59. 38	

〈표 5〉를 보면 경음을 잘못 지각하였을 경우에 격음으로 지각하는 경우(65.39)가 평음으로 지각하는 경우(34.1)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ㄱ/은 /ㄱ/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32.61%, /ㅋ/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65.22%였다. /ㄷ/은 /ㄷ/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41.43%, /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58.57%였다. /ㅂ/은 /ㅂ/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26.67%, /ㅍ/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73.33%였다. /ㅈ/은 /ㅈ/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40.63%, /ㅊ/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59.38%였다. 자음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음보다 격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6〉 격음의 지각 오류 분석 결과

격음			
계	격음(평음)	격음(경음)	예외
439	60	374	5
	13.67	85.19	1.14
ㅋ 264			
계	ㅋ(ㄱ)	ㅋ(ㄷ)	ㅋ(ㅂ)
134	12	121	1
	8.96	90.30	0.75
ㅌ 264			
계	ㅌ(ㄷ)	ㅌ(ㄸ)	ㅌ(ㅋ)
131	20	109	2
	15.27	83.21	1.53
ㅍ 264			
계	ㅍ(ㅂ)	ㅍ(ㅃ)	ㅍ(ㅌ)
74	13	59	1
	17.57	79.73	1.35
ㅊ 264			
계	ㅊ(ㅈ)	ㅊ(ㅉ)	
100	15	85	
	15.00	85.00	

〈표 6〉을 보면 격음을 잘못 지각하였을 경우에 경음으로 지각하는 경우(85.19)가 평음으로 지각하는 경우(13.67)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ㅋ/은 /ㄱ/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8.96%, /ㄷ/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90.3%였다. /ㅌ/은 /ㄷ/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5.27%, /ㄸ/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83.21%였다. /ㅍ/은 /ㅂ/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7.57%, /ㅃ/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79.73%였다. /ㅊ/은 /ㅈ/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5%, /ㅉ/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85%였다. 자음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음

보다 경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평음과 경음의 지각 오류와 비교하였을 때 격음의 지각 오류가 경음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 중성의 지각 능력

336개의 단음절 목록에서 중성은 /ㄴ/, /ㄷ/, /ㄹ/, /ㄴ/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음소 당 빈도는 84번이다.

〈표 7〉 중성의 음소별 지각 정확도

	ㄴ	ㄷ	ㄹ	ㄴ
1	82.14	27.38	67.86	33.33
2	5.95	95.24	76.19	29.76
3	65.48	51.19	70.24	60.71
4	53.57	63.10	66.67	59.52
5	85.71	96.43	85.71	97.62
6	61.90	73.81	59.52	72.62
7	67.86	82.14	69.05	79.76
8	65.48	39.29	38.10	65.48
9	70.24	32.14	53.57	61.90
10	73.81	32.14	61.90	58.33
11	70.24	45.24	59.52	75.00
평균	60.16	59.98	64.19	62.27

〈표 7〉을 보면 평균값에서는 정확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학습자 개개인을 보면 초성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음소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며 하나의 음소로만 지각하고 있는 학습자를 볼 수 있다. 1, 9, 10, 11번 학습자는 /ㄴ/와 /ㄷ/를 /ㄴ/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2번 학습자는 /ㄴ/와 /ㄷ/를 주로 /ㄷ/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 2번 학습자는 /ㄹ/와 /ㄴ/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여 /ㄹ/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8번 학습자는 /ㄹ/와 /ㄴ/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여 /ㄴ/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⁷⁾

7) 하호빈 외(2016)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ㄷ/, /ㄹ/, /ㄴ/ 등의 모음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원인은 원순성 대립이 체계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3. 종성의 지각 능력

336개의 단음절 목록에서 종성은 /ㄱ/, /ㄷ/, /ㅂ/, /ㅇ/, /ㄴ/, /ㄹ/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음소 당 빈도는 56번이다.

〈표 8〉 종성의 음소별 지각 정확도

	ㅇ	ㄴ	ㄹ	ㄱ	ㄷ	ㅂ
1	46.43	55.36	21.43	71.43	37.50	37.50
2	48.21	55.36	1.79	53.57	58.93	44.64
3	64.29	37.50	26.79	37.50	53.57	55.36
4	67.86	57.14	42.86	57.14	50.00	30.36
5	76.79	35.71	42.86	50.00	87.50	37.50
6	62.50	60.71	48.21	55.36	85.71	35.71
7	62.50	37.50	55.36	42.86	64.29	44.64
8	67.86	28.57	10.71	50.00	64.29	5.36
9	80.36	42.86	8.93	71.43	37.50	1.79
10	37.50	58.93	0.00	83.93	37.50	3.57
11	73.21	14.29	28.57	37.50	42.86	42.86
평균	58.52	44.09	30.63	53.98	54.40	30.77

〈표 8〉을 보면 종성에서는 양순음의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정확도가 초성과 중성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초성과 중성의 경우에는 일본어에서 하나의 음소가 한국어에서 두 개의 음소이기 때문에 한 음소의 정확도가 낮으면 다른 한 음소의 정확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종성의 경우에는 일본어에서 하나의 음소가 한국어에서 세 개의 음소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⁸⁾

4. 발음 능력

발음 능력 또한 초성과 동일한 단음절 목록을 발음하게 하였다. 단음절 목록을 그대로 발음할 경우 평음이 격음으로 발음되기 쉽기 때문에 ‘아’와 ‘이’를 임의로 먼저 말한 후 단음절을 발음하도록 하였다. 실험 대상자가 발음 후 스스로 틀린 발음인 것을 지각하여 다시 발음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시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윤은경(2015)에서는 ‘김치’와 ‘기무치’를 예로 들어 한국어에서는 2음절이지만 일본어권 학습자는 이를 3음절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표 9〉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 정확도

	평음	경음	격음
1	90.90	92.46	67.71
2	89.20	88.99	75.00
3	71.83	67.21	56.25
4	97.50	97.50	84.38
5	70.20	73.95	69.79
6	67.67	68.99	63.54
7	85.07	86.56	80.21
8	72.63	68.77	56.25
9	45.47	48.77	46.88
10	56.33	52.93	48.96
11	80.13	79.78	58.33
평균	75.18	75.08	64.30

〈표 10〉 초성의 음소별 발음 정확도

	ㄱ	ㄲ	ㅋ	ㄷ	ㄸ	ㅌ	ㄴ
1	92.00	95.65	66.67	91.67	87.50	66.67	87.50
2	96.00	78.26	91.67	87.50	95.83	62.50	87.50
3	80.00	65.22	45.83	58.33	75.00	54.17	79.17
4	100.00	100.00	87.50	100.00	95.83	75.00	100.00
5	76.00	73.91	58.33	83.33	83.33	79.17	66.67
6	80.00	78.26	66.67	54.17	66.67	58.33	70.83
7	92.00	86.96	83.33	75.00	87.50	83.33	95.83
8	84.00	52.17	54.17	87.50	75.00	54.17	70.83
9	44.00	52.17	41.67	45.83	41.67	54.17	54.17
10	40.00	52.17	45.83	58.33	45.83	54.17	79.17
11	84.00	73.91	58.33	75.00	87.50	54.17	87.50
평균	78.91	73.52	63.64	74.24	76.52	63.26	79.92
	ㄹ	ㅁ	ㅂ	ㅅ	ㅆ	ㅇ	ㅈ
1	91.67	91.67	91.67	75.00	91.67	95.83	62.50
2	87.50	95.83	91.67	87.50	79.17	91.67	58.33
3	62.50	66.67	62.50	70.83	75.00	70.83	54.17
4	100.00	91.67	95.83	100.00	95.83	95.83	75.00
5	66.67	58.33	87.50	75.00	66.67	58.33	66.67
6	70.83	62.50	58.33	62.50	70.83	70.83	66.67
7	87.50	75.00	91.67	79.17	87.50	79.17	75.00
8	75.00	58.33	62.50	54.17	62.50	79.17	62.50
9	45.83	45.83	54.17	41.67	37.50	50.00	50.00
10	62.50	66.67	62.50	45.83	37.50	41.67	50.00
11	87.50	75.00	83.33	66.67	79.17	66.67	54.17
평균	76.14	71.59	76.52	68.94	71.21	72.73	61.36

〈표 11〉 중성의 음소별 발음 정확도

	ㄱ	ㅋ	ㆁ	ㅡ
1	73.81	80.95	72.62	85.71
2	90.48	96.43	89.29	91.67
3	89.29	97.62	84.52	94.05
4	92.86	97.62	90.48	96.43
5	92.86	97.62	91.67	92.86
6	67.86	77.38	66.67	82.14
7	76.19	90.48	88.10	92.86
8	63.10	50.00	60.71	69.05
9	57.14	60.71	61.90	70.24
10	61.90	64.29	75.00	63.10
11	83.33	88.10	77.38	96.43
평균	77.16	81.93	78.03	84.96

〈표 12〉 중성의 음소별 발음 정확도

	ㅇ	ㄴ	ㄹ	ㄱ	ㄷ	ㅂ
1	89.29	35.71	89.29	66.07	83.93	98.21
2	87.50	73.21	85.71	87.50	82.14	98.21
3	91.07	91.07	92.86	89.29	89.29	80.36
4	94.64	53.57	66.07	73.21	73.21	89.29
5	98.21	83.93	89.29	60.71	75.00	94.64
6	69.64	91.07	87.50	80.36	91.07	92.86
7	83.93	94.64	76.79	91.07	91.07	82.14
8	75.00	8.93	55.36	78.57	44.64	60.71
9	71.43	30.36	66.07	48.21	78.57	82.14
10	83.93	19.64	71.43	87.50	32.14	82.14
11	91.07	89.29	80.36	71.43	82.14	92.86
평균	85.06	61.04	78.25	75.81	74.84	86.69

〈표 9〉, 〈표 10〉, 〈표 11〉, 〈표 12〉를 보면 지각 능력에서는 일본어에서 하나의 음소가 한국어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음소인 경우에 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하나의 음소로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발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지각에서의 평균처럼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음소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음소에서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어 발음은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각하지 못하는 음소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모순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각 능력과 발음 능력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1명을 대상으로 실험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수업에서 지각 연습을 한 적은 없었다. 지각 연습은 집에서 숙제로 하기는 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였을 뿐이었다고 하였다. 반면 발음 연습은 한국어 수업에서 초기에 일정시간 하였다. 그 때 경음과 격음의 발음 방법을 배웠고 그대로 발음을 하고는 있지만 역시 자신들의 발음의 차이를 지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도 없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수업이 발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각을 함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지각 및 발음 능력 실험 분석 결과

1. 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

2장에서의 결과를 보면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지각 능력 보다 오히려 발음 능력이 뛰어났다.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더라도 그 발음이 정확한 지 학습자들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지각과 발음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실험 대상이 11명이었기 때문에 대응표본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3> 지각과 발음 능력의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Z	-2.934b	-.089b	-2.384c	-1.330b	-1.030b	-2.403c	-.614b	-1.426b	-1.226c
근사 유의확률(양측)	.003	.929	.017	.183	.303	.016	.539	.154	.220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Z	-1.960b	-2.708c	-.981b	-2.936c	-2.499b	-2.111c	-2.578c	-.890b	-2.578b
근사 유의확률(양측)	.050	.007	.327	.003	.012	.035	.010	.373	.010
	중성	ㅇ	ㄴ	ㄷ	ㄹ	ㅁ	ㅂ	ㅅ	ㅆ
Z	-2.934b		-1.246b	-2.936b	-2.936b	-2.936b		-2.713b	
근사 유의확률(양측)	.003		.213	.003	.003	.003		.007	
	중성	ㅇ	ㄴ	ㄷ	ㄹ	ㅁ	ㅂ	ㅅ	ㅆ
Z	-2.934b	-2.671b	-1.245b	-2.934b	-2.313b	-2.180b		-2.936b	
근사 유의확률(양측)	.003	.008	.213	.003	.021	.029		.003	

a.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b.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c.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통계분석 결과인 <표 13>을 보면 지각과 발음의 전체 정확도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확률은 .003이다. 따라서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지각과 발음 능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지만 발음은 지각과 비교하였을 때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교수자들이 학습자의 발음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각에 대한 교수는 부족함을 보여준다.

초성을 보면 유의확률이 .929이다. 그러나 격음의 유의확률이 .373으로 격음에서는 지각과 발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평음과 경음의 유의확률은 .01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소별로 보면 평음은 5개 중 4개가, 경음은 5개 중 2개가, 격음은 4개 중 1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성을 보면 유의확률이 .003이다. 음소별로 보면 4개 중 3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종성의 유의확률은 .003이다. 음소별로 보면 6개 중 5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지각 능력과 발음 능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를 교수함에 있어 발음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각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학습자들의 생각이며 그 생각은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에서는 하나의 음소가 한국에서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음소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를 지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각 능력을 보면 초성의 경우 평음은 정확하게 지각하였으나 경음과 격음은 그렇지 못하였다. 중성의 경우에는 /ɿ/와 /ɯ/, /ɹ/와 /ɻ/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여 둘 중 하나의 음소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성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하나의 음소가 한국어에서는 세 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발음 능력을 보면 지각 능력에서의 평음처럼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음소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음소에서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어 상당히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스스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발음이 정확하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발음에는 상당 부문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듣기는 여전히 학생들 스스로가 해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을 이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 아닌 일상 회화를 분석하여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진·조혜숙·황유미·남기춘(2002), “일본어 화자의 한국어 평음/기음/경음 지각 오류”,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7: 166-180.
- 모리카나(森香奈)(2008), “일본인의 영어와 한국어 발음의 오류 분석”,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6: 19-29.
- 오대환(2003),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111-144.
- 윤은경(2015), “L1과 L2의 음절구조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지각 실험”, 『동악어문학』, 64: 409-438.
- 이경희·정명숙(1999),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파열음의 발음 및 인지 교육”, 『한국어교육』, 10: 233-255.
- 하호빈·이화진(2016), “모음 체계와 자질에 의한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 분석”, 『한민족문화연구』, 55: 37-58.
- 홍혜진·류혁수·정민화(201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과 발음 평가의 상관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6: 101-108.